

녹색 관광산업 발전 방안

김덕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국제사회에서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연료 없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현상을 초래해 왔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처하기 위해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농도가 서서히 늘어나다가, 1950년대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화석연료는 고갈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화석연료인 석유자원은 약 40년, 천연가스는 약 60년 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발전이 가져다 줄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주목하면서,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하였다.

이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선진국의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분야는 에너지효율성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개최하여, 생물다양성 보존, 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제한, 교토의정서 비준촉구,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촉구 등의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을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 등 39개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졌으나, 발리 로드맵에 따른 'POST 2012'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 온 미국은 물론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규정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협약의 달성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감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합의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대립으로 계량적인 감축목표 수립에는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제회의에서 환경문제와 생태계 보전에 자발적인 노력 수준을 넘어, 각국이 강제로 이행하는 수준까지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변화¹⁾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해왔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과 함께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한정된 화석연료의 국제거래가격이 불안정하여 경제발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존 경제순환 패러다임은 한정된 화석에너지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생태계와 경제발전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기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서, '녹색성장'의 개념과 유사하긴 하나, '지속가능 발전'의 한계로 지적되는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녹색성장이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서,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성장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고, 친환경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전 세계가 당면한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량 감축과

1) 김덕기(2009), 계간 관광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에서 관광이 나아갈 방향" 참조

제도'를 시도했다.²⁾

또한 부산시는 일반가정 및 상업부문 세대주, 사업자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시민에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 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가정·상업 시설·기업이 참여하여 배출 절감량에 대한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대응활동 프로그램으로, 시범기간 참여 신청자는 전기·수도 절감량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적립하고, 교통카드 또는 공공시설 이용권, 문화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세토내해(瀬戸内海)의 나오시마는 인구 3,600여명의 작은 섬이다.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던 나오시마는 1900년대 초, 미쓰비시의 철광석 제련소가 들어온 뒤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다. 철과 구리 등과 같은 금속제련 산업으로 20여 년 전만 해도 공해와 오염 때문에 거의 황폐하였으며 주민 대부분이 어업과 중공업에 종사하던 이 곳에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90년대이다.

1992년 대도시를 벗어난 낙도에서 자연과 예술이 조화되는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나오시마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매년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지로 발전하였고 미국의 여행잡지 '트래블러(traveller)'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보고 싶은 7곳'의 하나로 뽑혔다.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크게 '베네세 하우스, 지추(地中)미술관, 아트하우스 프로젝트'의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

미술관과 호텔이 만난 이색적인 건축물인 베네세 하우스는 자연과 예술의 공존이라는 개념 아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에 의해 1992년 완성된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핵심 건물이다.

베네세하우스 미술관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지추미술관은 2004년 개관했다. 지하 30m에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특수공법을 이용한 랜드 아트로서 건축된 지추미술관(地中美術館)은 세토내해의 자연과 예술품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지추(地中の 일본식 발음)미술관은 땅 속에 만들어진 공간으로, 아름다운 언덕의 능선을 훼손하지 않으며 들어가다 보면 저절로 하늘을 보게 된다.

1998년부터 시작된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혼무라(本村)' 지구의 버려진 낡은 집을 을 설치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다. 특별할 것 없는 일본의 구옥과 신사를 하나의 예술

2) 부산중구신문(2009) 참조

작품으로 탈바꿈시켜 일상의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고가옥을 보존해 문화적으로 지역전통을 재생하는 것이다. 현재 총 6곳이 개방되어 있으며, 아트하우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동네 주민들이고 입장권을 파는 곳 또한 마을 어귀의 작은 담배 가게다.

지역 재생을 전략으로 건물의 리노베이션과 아트를 도입한 사례는 프랑스 낭트시, 핀란드 피스카스 마을, 독일 엡센시 등 세계적으로는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나오시마의 경우, 세토내해의 떠오르는 섬이라는 입지적 요인과 주민들의 열성적인 의지에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일례에 불과하며, 지역도시이전 관광지이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관광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방향

관광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framework)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상적 개념의 의제를 세부 부문에 적용 가능하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는 세부 산업 부문별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는 기초가 된다.

기본방향은 정책의제를 각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정립하는 것이며, 산업별 특성과 제약점을 파악하여 정책 우선순위와 접근 전략을 구상하는 일이다. 이는 향후 수립하게 될 실행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이 어떠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탄소감축의 가능성과 탄력적 대응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세부 산업별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과 기후변화가 관광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측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에서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세부 산업별 탄소배출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광 상품의 유통단계나 소비자 및 중간생산자 접목단계별로 탄소배출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탄소배출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문별 탄소배출 디렉토리의 작성이나 탄소배출 절감 가능성 진단, 에너지 감축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광분야별 에너지 사용 감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야별 에너지 사용 감축 가능성 진단, 연도별 에너지 사용 절감목표 수립,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계획은 관광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저탄소 배출 시스템으로의 교체,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줄이기 등을 통해 에너지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나오시마 문화관광단지 프로젝트 중 지쥬(지중)미술관이나 아트하우스는 에너지 절감이나 재활용의 사례이다. 지쥬미술관은 지하에 조성한 공간으로 언덕의 능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냉난방을 최소화한 경우이다.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는 일상의 생활공간(버려진 집)에 주제를 설정하고 예술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설치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다섯째,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확산으로 탄소배출 산업이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기업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현실화되면 저탄소 배출 기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많이 구입하여야 하므로 상품의 원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탄소배출의 다과에 따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변동하게 되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상품을 구매하려 할 것이므로, 탄소배출이 적은 상품으로 산업의 구조가 재편되어 나갈 것이다.

아직 민간부문은 탄소감축에 대한 강제이행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탄소감축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이해와 시행을 사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먼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산시를 중심으로 시범 시행된 사례가 있다. 부산시에서는 관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탄소배출 감소율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홈페이지에 “탄소나무계산기”를 도입하여 여행자의 여정에 따라 배출하는 탄소를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하는지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적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탄소배출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거래 개념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탄소배출 시뮬레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도입의 영향도와 순응도를 측정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시키기 위해 관광지나 관광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여섯째, 관광부문의 현장에서 대체자원의 개발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체자원의 개발방식은 사업규모와 기술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체에너지를 얻는 경우에는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되, 에너지의 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다. 반면 첨단기술이 아닌 중간정도의 기술³⁾은 사업장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되,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은 감소하지만 기술을 자립하여 운영자가 대체 에너지를 직접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도 운영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느 기술을 활용하든지 간에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은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은 신규 정책의제를 소규모로 구현하여 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거나, 정책의제의 확산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소위 “녹색관광마을”을 지정하거나 조성하여 이용객이 저탄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마을은 주변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열, 풍력, 축산물 및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을 극소화한 마을이다. 이러한 마을의 사례는 종교적 측면에서 발생한 미국의 아미쉬 마을이나, 캐나다의 매너라이트, 한국의 민들레공동체 등이 있다. 이들 마을은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며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주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일반 방문객들이 “녹색관광마을”을 방문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며 생활하는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방문객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기존 관광지를 리모델링하면서, “탄소중립관광지(carbon-neutral resort)”나 “차 없는

3) 중간기술 또는 대안기술은 우리나라 산청의 민들레 공동체에서 활용하는 녹색기술 개념이다. 이 기술은 주어진 환경하에서 쉽게 획득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되, 대체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획득에 대한 기술에 있어 유지보수와 운영을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말한다.

관광지(car-free resort)"를 조성하는 경우, 탄소중립 관광지 자체가 관광매력성을 가질 수 있다. 관광객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탄소중립 관광지에서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관광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의무감축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는 녹색성장의 시류에 따라 녹색성장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제를 각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독창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분야별로 산업의 취약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녹색성장의 의제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향 설정은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분야별 방향설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추진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설계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산업계의 역할, 소비자의 역할 등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기(2009), 계간 관광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에서 관광이 나아갈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덕기(2009), 웹진 문화관광: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08), 녹색무국으로 가는 길
 문화체육관광부(2008), 녹색성장: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
 문화체육관광부(2009), 저탄소 녹색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08),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2009), <http://carbon.kfri.go.kr/carbontreepius.aspx>, 탄소나무계산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내부자료
 www.korea.kr(2009), "녹색성장,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www.president.go.kr(2009), "녹색성장,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